



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일	2024년 4월 23일
문의	이현주 연수기획관 (Phone) 064-735-6581/(E-mail) hjlee.jitc@gmail.com

유엔훈련연구기구 제주국제연수센터 (UNITAR CIFAL Jeju) 주관

『아태지역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대중교통 전략 모색』

역량강화 국제워크숍 개최

- 제 11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와 연계 개최 -

4.30(화) ~ 5.2(목),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도국 지도자 등 참석 예정

1.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이하 센터, 소장 정병화)는 오는 24.4.30-5.2간 제주도 서귀포에서 「아태지역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대중교통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역량강화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

○ 2022년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운송 부문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여년간 연평균 배출량 증가율이 1.8%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운송부분 에너지 사용의 약 91%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운송분야에서의 탄소저감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센터는 지난 몇 년간 운송분야 저탄소 방안 모색을 위한 개도국 대상 워크숍을 개최해 왔으며, 2023년에는 아태 개도국의 이·삼륜차 등의 전기차 전환 진흥방안 등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이의 연장 차원에서 금번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을 대상으로 친환경 저탄소 대중교통 정책 진흥 방안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개최코자 한다.

2. 금번 워크숍에서는 ①아태지역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 ②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 확산을 위한 도시계획 방안, ③국내외 금융 및 재원조달 정책, ④저탄소 에너지 및 관련 기술, ⑤서울시의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 및 제주도의 15분 도시 정책 등에 대한 강연과 우수사례 공유 및 참가자 국가 동향 발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아태지역 8개국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으로부터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비정부기구 인사 등이 금번 워크숍에 참석하여 강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자국에 맞는 정책 입안 활동도 수행할 예정이다.

○ 또한 참석자들은 제주에너지공사의 CFI에너지미래관을 방문해서 제주도의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학습할 예정이다.

3. 금번 워크숍에는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서울국제개발협력단, 건축공간연구원 및 환경전문 국내외 자문회사의 전문가가 강연하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4. 금번 워크숍은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4월 30일(화) - 5월 3일(금) 개최되는 제 11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와 연계하여 개최되는데, 참가자들은 회의 첫날 엑스포 장소에서 강연에 참석하고 엑스포 개막식 및 전시관을 참관할 예정으로서 최신 저탄소·친환경·미래 모빌리티 정책과 시장 동향을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 엑스포 일반 참가자도 첫날의 워크숍 참석이 가능한데, 이를 통해 개도국 대중교통의 녹색전환 관련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24.4.30~5.3, 서귀포 ICC 개최): 미래 e-모빌리티에 대한 최신 국내외 정책 동향을 보여주고 전시회, 투자, 산업 정책, 비즈니스 콘

퍼런스, 미래 모빌리티 체험 등을 통해 역동적인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과 정책을 총망라하는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 해당 국제워크숍은 통역없이 영어로 진행되며, 4.30일(09:30~16:00)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02호, 5.1~2일(각각 09:30~18:30, 09:00~12:30)에는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 **[붙임 자료]** 행사 개요. 끝.

I. 배경 및 목적

○ 2023년 유엔환경계획 (UNEP) 배출 격차 보고서는 파리협정 목표인 1.5도 경로에 부합하려면 2030년 전 세계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42% 감축하고, 2050년경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데, 2021년과 비교하여 2022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1.2% 증가하여 총 57.4 기가톤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에서도 1.5도 섭씨로의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확률이 단 14%라고 경고한 바 있음.

○ 2022년 국제에너지기구 등에 따르면 운송 부문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지난 10여년간 연평균 배출량 증가율이 1.8%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에너지 사용의 약 91%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운송분야에서의 탄소저감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어 왔다.

○ 따라서, 국제사회는 저탄소 교통으로의 시급한 전환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각국은 도시계획, 에너지 시스템, 비동력 교통수단 도입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교통 수요를 관리하면서 저탄소 대중교통의 도입·전환·활성화를 통해 이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환경적 악영향을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한편, 작년에 개최된 교통 워크숍에서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은 아·삼륜차, 노후화된 시륜차와 같은 화석연료 집약적 운송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친환경적 대중교통 미흡 및 노후화로 인한 부족한 교통수요 분담율과 온실가스 및 공기 오염원 배출 등 환경적 악영향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 바,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보급·활성화가 해당 국가들의 저탄소 교통시스템 구축에 있어 주요 과제 중 하나임이 확인됨.

○ 이에, 아태 개도국의 도로교통 부문에 있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 수요 및 수단 관리를 위한 저탄소 대중교통 시스템으로의 전환, 대중교통 및 비동력 교통 기반 친화적 도시계획,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시스템 확충 등의 통합적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 계획 수립 및 적극적 이행이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함.

- 구체적으로 아태지역 개도국 도로교통 실정에 맞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도입·확산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실질적 역량강화를 목표로 ① 각국의 녹색교통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② 통합적 녹색 대중교통 전략 및 정책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③ 대중교통 및 비동력 교통 지향 도시계획 검토, ④ 에너지 및 관련 기술 트렌드와 적용 가능 옵션 소개, ⑤ 국내·외 자원 조달방안 제시, ⑥ 서울시 및 제주도 등 성공 도시 사례 소개 및 ⑦ 참가자 본국 현황 기반 프로젝트 수립 및 제안서 작성 방안 등을 소개하고자 함.

-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센터는 지난 몇 년간 운송분야 저탄소 방안 모색을 위한 개도국 대상 워크숍을 개최해 왔으며, 2023년에는 아태 개도국의 이·삼륜차 등의 전기차 전환 진흥방안 등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이러한 배경에서 아태지역의 대중교통 정책 수립 및 이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이해관계자(공공기관, NGO 및 시민사회 지도자)의 역량강화가 개도국 환경보호에 중요한 과제를 인식하고, 본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함.

○ 아울러, 본 워크숍의 일부를 제주도 서귀포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개최될 제11차 국제e-모빌리티 엑스포와 연계 진행하여, 워크숍 참가자들에게는 최신 그린·미래 모빌리티 정책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동의 과제 및 기회로서 개도국의 대중교통의 녹색 전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함.

II. 연수 개요

주최	UNITAR CIFAL Jeju (제주국제연수센터(JITC))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외교부
행사명	아태지역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대중교통 구현 글로벌 전략 워크숍 (A Pathway towards Decarbonized and Cleaner Mobility in Asia and the Pacific- Envisioning Green Possibilities of Public Mobility)
장소	대면 (제주국제연수센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일시	2024년 4월 30일(화) ~ 5월 2일(목)
구성	전문가 강연(친환경 대중교통 구현 전략(정책), 도시계획, 금융, 에너지&기술적 접근 방안 소개 및 도시(제주) 사례 등), 그룹/개인 활동, 현장학습 (제 11차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관람 및 친환경 대중교통·에너지 관련 현장방문)
참가자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출신 대중교통 정책 수립 및 이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 이해관계자(공공기관, NGO 및 시민사회 지도자) 20명 이내
언어	영어 (일부 세션은 한->영 통역을 제공할 예정)

III. 세부 일정(안)

날짜	시 간	주 요 내 용
4.30 (화) 장소: ICC 제주 (국제e-모빌리티 엑스포 컨퍼런스로 참가)	9:30 ~ 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및 오리엔테이션 • 강의1. 아태지역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대중교통의 중요성 및 역할 • 강의2. 통합적 친환경 대중교통 계획 및 운영 전략 모색(정책적 접근 방안을 위주로) • 그룹/개인활동 2. 참가자 세션 - 본국 대중교통 현황 공유 • 강의3. 효과적인 기후금융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을 위한 논리모형 및 액션플랜 도출 방법론 소개 • 그룹/개인활동 1. 제11차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세미나 참석 및 관람
5.1 (수) 장소: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09:30 ~ 1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개인활동 3. 문제 & 해결 나무 도출 • 강의4. 아태지역 친환경 대중교통 도입·확산을 위한 도시계획적 접근방안 소개 • 강의5. 아태지역 친환경 대중교통 도입·확산을 위한 국·내외 금융 및 자금조달 기회 및 방안 소개 • 강의6. 아태지역 친환경 대중교통 도입·확산을 위한 에너지 및 기술 트렌드 및 적용 가능 옵션 소개 • 강의7. 서울시 사례 - 대중교통 혁신(준공영화, 노선 관리, BRT 시스템, 전기버스 도입, 버스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친환경 교통시스템으로의 전환 • 강의8. 제주도 사례 - 15분 도시를 통한 탄소중립 - 이동의 변화 • 그룹/개인활동 4. 변화이론, 로직프레임워크, 액션플랜 도출
5.2(목) 장소: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09:3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개인활동 5. 그룹/개인활동 결과발표 및 자문 • 폐회 • 현장학습. CFI 미래 에너지 센터 방문 (잠정)

* 상기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음.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JITC)-

-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는 1963년에 설립된 유엔 내 교육훈련과 종합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기구로 유엔(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와 연계한 환경, 평화, 사회, 경제, 거버넌스 분야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UNITAR는 이를 위해 전세계에 지역별 연수를 담당하는 31개의 지역연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제주국제연수센터(JITC)는 비록 13여년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매우 모범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연수센터로 평가받고 있다.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는 지금까지 2만1천명 이상의 수혜자들에게 세미나, 워크숍 또는 원격 교육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 수혜자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 강화에 기여해오고 있다.
 - ‘위드 코로나’ 상황하에서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워크숍(Workshop)과 세미나(Webinar) 과정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JITC)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Tel 064 735 6581 Fax 064 738 4626

소장 정병화, 기획관 이현주

www.cifaljeju.org